

주 일 예 배

2020년 1월 5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102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John) 10:11-15, 27-29	이규본목사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새 시대를 열어주는 선한목자” “The good shepherd opens a new era.”	이규본목사
성찬식	COMMUNION		다함께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219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월 헌금 송:** 1/05: 서성령 목사, 1/12: 바나바 선교회
- 씨알헌금:** 매년 1월 첫 주일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씨알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로다”(고후9:6)
- 재정보고:** 2019.12.29. (췌)재정부에서 2019년 교회 재정보고를 하였고 제직회에서 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특별지정헌금:** 권혁운, 장영순 권사(앰프, 믹서, 스피커 구입),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집사(프러젝트 구입)을 위하여 특별 지정 헌금을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배후에 안수집사, 권사회회가 있습니다.
- ERTS:**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및 쉼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사역자 여러분들이 성기는 것입니다.
- 다이어리:** 성경 읽으며 생각하거나 은혜 되는 말씀을 매일 기록 하십시오. 교회 에서드립니다.

금주의 말씀

(1.5.2020)

본문: 요한복음 10:11-15 제목: 새 시대를 열어주는 선한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4-15)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새해를 열어 주셨습니다. 선한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인 우리들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목자 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새 시대를 열어 주시는 선한 목자 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목자는 양을 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14절) ‘선한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참 목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 에는 깊은 불안과 죄 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까지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필요 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새 시대를 열어 주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2.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섞여있어도 예수님은 자기 양을 구별해 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요10:26절)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요14:26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일, 기도할 때 생각나는 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양심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 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 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10:29절)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으로 성장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하셨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반면에 선한 목자 이외에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생각해 보자.

첫째 선한 목자는 문으로 정당하게 들어간다. 즉 합리적인 길을 통해서 양을 만난다. 그러나 절도나 강도는 양을 낚탈하러 왔으므로 뒷문이나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사이는 서로 믿고 순리적인 관계이나 강도와 절도는 그 반대인 것이다.

둘째 선한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알아 듣는다고 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듣고 반가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다정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 각 부른다. 개인적인 관계를 말한다. 양이 많다고 해서 한 마리쯤은 이름을 모른다고 소홀히 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마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선한 목자는 앞서서 간다. 양을 개별적으로 다 불러 모아 놓고 다음에 목자가 앞서서 길을 인도하면 양들은 줄줄이 그 뒤를 따라간다. 앞서가는 것이 지도자의 성격이다. 지도자는 앞서가야 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앞에 서서 가야 한다. 자기는 가지 않고 남에게만 가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 언제든지 내가 먼저 간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문제는 내가 가지 않고 남에게만 가라고 하면 말이 많다. 말없이 내가 앞서서 봉사하면 뒤따라오게 마련이다, 먼저 행하고 모범을 보이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믿고 안심하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한다. 비탈길이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유를 묻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자세이다.

다섯째 선한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지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아주 잘 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잘 아신 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다. 여섯째 선한목자는 양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 선한 목자는 양이 우는 것을 보면 배가 고프는지 다쳤는지 병이 들었는지 모두를 잘 알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선한목자는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01052020)

2020년 기도제목

1.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 성장,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2.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하고 사랑하자)
3. 성전건축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4.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EM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5. Cell 모임을 배가 되게 하소서
6. ERTS신학교가 부흥케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이규본
- *행정전도사: 현종영
- *교육전도사: 전행복(EM), 정연희(주일학교)
- *전도사: 박휘영, 한우연
- *권사: 이재숙
- *안수집사: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이재숙 *반주: 서남숙
- *찬양대: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요1:51)
 “The Church Opens a New Era”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